

세계 아티스트들이 선택한 전주 문화공간이름

조운성·시게키 오쿠보 트리오, 앨범 발매 공연 18일 개최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재즈 협업 프로젝트가 전주 문화공간이름에서 공개된다. 피아니스트 조운성이 5년 만에 다시 이름 무대에 오르는 가운데, 일본 재즈 드러머 시게키 오쿠보와 함께 하는 트리오로 앨범 발매 공연이 마련된다.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5시, 전주 문화공간이름에서 열린다.

오쿠보의 리더 앨범 Blue Moment 발매를 기념해 마련된 이번 무대는 일본 가고시마 미야마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동시 녹음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다. 조운성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이름을 다시 찾으며, 일본 큐슈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시게키 오쿠보와의 협업으로 무대의 의미를 더한다.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영화음악 작업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온 오쿠보의 합류는, 이 공연을 단순한 앨범 발매 무대를 넘어 동시대 재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확장시킨다.

트리오의 피아니스트 조운성, 베이스리스트 전창민, 드러머 시게키 오쿠보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음악적 배경을 지닌 세 연주자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유기적인 사운드를 구축하며, 즉흥성과 구조가 공존하는 재즈 트리오의 밀도를 만들어낸다.

프로그램은 오쿠보와 조운성의 오리지널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노르웨이 작곡가 Edvard Grieg의 'Arietta', 일본 시타카프 'Stay

With Me', Burt Bacharach의 'Rain Drops Keep Falling In My Head' 등은 재즈 트리오 편성으로 재해석되며, 기존의 음악적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결의 사운드를 형성한다. 여기에 Tormita Lab의 작품과 일본 대중음악 레퍼토리가 더해지며,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음악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공연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전주 공연장 가운데 문화공간이름을 선택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단순한 투어 일정의 일부가 아닌, 사운드의 밀도와 음악적 호흡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문화공간이름은 연주자와 관객 간의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음의 결, 호흡의 변화, 즉흥적 반응까지 섬세하게 전달하는 공연장이다. 재즈와 같이 순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장르에서 이러한 환경은 음악의 구조뿐 아니라 그 사이의 여백까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문화공간이름 이윤정 이사장은 "조운성 피아니스트가 5년 만에 다시 이름 무대에 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공연은 일본의 수준 높은 재즈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은 음악의 디테일과 감정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달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연



조운성·시게키 오쿠보 트리오 앨범 발매 공연 포스터

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재즈, J-Pop, 클래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이번 무대는 연주자 간의 긴밀한 호흡과 즉흥적 상호작용을 통해 현대 재즈 트리오의 미학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네이버 예약과 전화 예매, 문화공간이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는 티켓 2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예약 및 문의는 문화공간이름(063-223-5323)을 통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10)

결혼도 했겠지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대체 어떤 힘이 루이지의 마음에서 발현되어 이렇게 자신을 던져 봉사하는 일이 가능할까 여전히 의문이었다.

루이지는 동해원 사람들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나병환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고품을 짜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치료 행위로 서슴없이 했다. 사람들에게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꼭 약을 챙겨먹도록 권유도 했다.

그녀는 점점 동해원 사람들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예배당에 나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았다. 더불어 동해원 식구들도 차츰 더 늘어났다. 다른 나환자 정착촌에 비해 살기가 좋다는 소문이 난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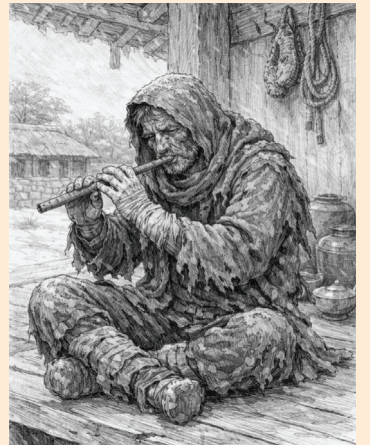
남준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피리를 만들었고 가끔 꺼내 불었다. 피리 소리는 지난 과거를 불러다 남준 앞에 펼쳐 놓기도 했는데 그중 명희의 기억이 남준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살아 있거나 한 것일까. 눈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선운산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 지리산으로 들어갔을까. 아니면 산을 내려와 다른 곳으로 갔을까.

살아 있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결혼도 했겠지. 무업은 이어나가고 있는 것일까.

문득 이곳에서도 농악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병 정도가 남준만 하면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남준은 곧 실행에 옮겼다. 루이지 수녀와 함께 고창읍에 나가서 장구와 징, 팽과리를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했다. 남준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일부러 장구를 연주했는데 마을 사람들 반응이 좋았다.

다들 예전 살았던 마을에서 들어왔던 악기소리였기 때문이라. 환자들 중에는 장구를 제법 연주할 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배워보겠다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남준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장구도 가르치고 피리도 가르쳐줬다.

농악대를 편성해 골목을 돌아다니며 연주할 수는 없었지만 앉은 자리에서 흥을 돋으며 굿을 쳤는데 싶어하는 마을 사람들 없었다.



전북 문화예술인 어울림 한마당 성료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 연회장에서 전북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전북 문화예술인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예총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최우연) 주최로 전북 내 13개 시·군 예총과 9개 협회 소속 문화예술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지역 간 문화예술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첫날에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 이어 전북 문화예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분임토의와 예술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시간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번산반도 등 부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문화를 체험하는 현장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장기포의 햇불, 천리를 밝히다'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유물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4월 이달의 전시로 '무장기포의 햇불, 천리를 밝히다'를 주제로 유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진행된다.

전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부지와 무장현 관아, 읍성에서 출토된 유물 23점을 선보인다.

특히 2023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창 구암리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주검지와 무물 등이 확인됐으며, 생활유물과 상경통보 등 총 24점이 수습·인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주요 유물로 공개한다.

무장기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다. 1894년 음력 3월20일 동학농민군이 봉기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포고문을 낭독하며 1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역사적 현장이다. 이는 지역적 민란이 전국적 농민혁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고창군은 4월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주간'을 운영하며, 기념제와 진격로 걷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혼불문학관 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혼불문학관이 대하소설 '혼불'의 문학적 자산을 다각도로 경험할 수 있는 단체 참여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작품 속 언어와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 방문객들이 소설 혼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학적 유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 방문객은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 두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 참여할 수 있으며, 소설 제2권에 등장하는 민속놀이 '고누'를 직접 즐기는 △플레이 놀이와 작품 속 수려한 어휘를 바탕으로 나만의 글을 써보는 △혼불 나의 언어 정원이 각각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참가 대상은 회당 5명 이상 18명 이하의 단체로, 각 프로그램은 40분 내외로 진행 △플레이 놀이는 10세 이상 △혼불 나의 언어 정원은 14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혼불문학관 유선전화(063-620-5746)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는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문학관 내 체험 공간인 '꽃심관'의 리모델링을 추진,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문학관의 정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불문학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다하는 방침이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